

李정부 첫 추경, 31.8조 확정... 소비쿠폰·지역경제 지원 강화

올해 2차 추경안, 총 31.8조로 국회 본회의 통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비 보조율 최대 90%까지 ↑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지원강화... 일부사업 감액 관리재정수지 적자, GDP 대비 4.2%로 확대돼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이 총 31조8000억원 규모로 4일 최종 확정됐다. 국회에 제출했던 정부안(30조 5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정리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규모의 올해 2차 추경안 수정안을 재석 182명 중 찬성 168명, 반대 3명, 기권 11명으로 통과시켰다.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1일 만이다.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30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됐으나, 국회 심의 과정을 거치며 그보다 1조3000억원 늘었다.

여야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비 보조율을 최대 90%까지 높이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지원을 강화하는 등 2조4000억원을 증액한 대신 일부사업 1조1000억원을 감액해 순증 예산을 마련했다.

국회는 "인수위 없이 출범했음에도 새 정부 공식 출범(지난달 4일) 이후 31일 만에 확정됐다"며 "경기진작과 민생안정을 위한 재원을 신속히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수혜 계층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부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을 수정·보완했다"고 부연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비 보조율은 서울 기준 70%에서 75%, 그 외 지자체는 80%에서 90%로 각각 상향됐다. 지자체 여건 등을 고려한 예외적 조치라는 것이 국회 설명이다.

비수도권 거주 주민에게는 3만원, 농어촌 등 인구감소 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수도권 주민에게는 기존 15만~50만원 수준의 지원금이 유지된다.

인공지능(AI)과 기후 대응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도 늘렸다.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피지컬 AI'(로봇에 AI가 결합돼 현실 세계와 직접 상호작용하는 기술) 선도모델을 설계 및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전압 송전 기술 개발과 차세대 태양전지 등에 대한 예산도 증액했다.

민생 안정 등을 위한 재정 투입도 늘렸다. 우선 농어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대상 인원을 1만2000명에서 1만5000명으로 늘리고, 맞춤형 돌봄 인력에게 지급되는 전문수당을 월 5만원에서 15만원으로 3배 인상한다. 0~2세 및 장애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도 5% 인상했다.

농어업 분야에선 국산 콩 수급 안정화를 위해 연내 2만 추가 비축이 추진된다. 이상수온 대응 장비도 확충하고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30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수출기업의 해외 판로개척 비용도 지원을

	[합 계]	(정부안)	(국회확정)	(증감)
1	경기 진작	15.2조원	17.3조원	+2.1
	▶ 소비여력 보강	11.3	13.3	+2.0
	▶ 건설경기 활성화	2.7	2.7	+0.02
	▶ 신산업 분야 투자 촉진	1.2	1.3	+0.1
2	민생 안정	5.0조원	5.3조원	+0.3
	▶ 소상공인 재기 지원	1.4	1.4	-
	▶ 고용안정망 강화	1.6	1.6	-
	▶ 취약계층 지원 (발달장애인, 농어민 등)	0.7	1.0	+0.3
3	세입경정	10.3조원	10.3조원	-
	▶ 금년 예산의 차질없는 집행 지원			
※ 국회 감액		-	△1.1조원	△1.1

확대한다.

산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담수량 3만리터(0급 대형 산림헬기 3대를 임차하고, 산불 피해를 입은 송이 재배농가에는 대체작물 생산시설을 추가 지원한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총지출 규모는 703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1% 증가한다.

나라 실질 살림살이를 가능할 수 있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4.2%로 확대되고, 국가채무비율은 49.1%로 상승할 전망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총 2조4000억원이 증액됐지만 집행 여건 변화와 낙찰차액 활용 등을 통해 1조1000억원을 감액해

국채발행 부담을 최소화했다는 것이 국회 측 설명이다.

실제 국회는 민간 투자 여력을 고려해 1600억원 규모의 펀드 사업 3개를 축소하고, 수원국의 정세 변화를 감안해 74조원 규모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3개를 조정했다.

정부는 내일(5일)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배정계획안을 의결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이달 중 1차 지급을 시작으로 전담반(TF) 준비 등을 거쳐 2개월 내 전국민의 90%에게 10만원씩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뉴시스

전남도, 농업인·농축산물 폭염 피해 최소화 총력 농업 관계기관 영상회의서 분야별 대응 방안 논의

전라남도는 4일 농업 분야 폭염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 영상회의를 열어 농업인과 농축산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현장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분야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농업정책과, 식량원예과, 축산정책과를 비롯한 도 농축산식품국 관계 부서, 전남도농업기술원, 시군 농정과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선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보다 공고히 하는 데 중점을 두고, 폭염 대응 분야별 중점 추진 대책과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기상 상황 수시 확인 ▲오후 12~18시 농작업 중단과 충분한 휴식 ▲나홀로 작업 금지(2인 1조 농작업 권장) 등 행동요령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국인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9개국 언어로 폭염 대비 교육영상과 홍보전단을 제작·배부하고, 고용주에게 여름철 낮 시간대는 농작업 중단을 당부했다.

또한 선제적 농업용수 확보 및 공급을 위해 관정·저수지 등 대체 수원 개발과 정비, 용·배수로 정비, 양수기와 스프링클러 등 관계시설 점검·확충을 추진하도록 했다.

폭염에 따른 작물 고사와 병해충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논벼 병해충

예찰 강화와 공동방제 ▲인삼밭 이중 차광막 설치 ▲과수원 차광막, 미세 살수장치 운영 ▲밭작물 토양 피복 등 폭염 대응 재배기술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고온으로 인한 가축 스트레스와 폐사 예방을 위해 축사 지붕에 열 차단재 도포, 지붕 물뿌리기, 환풍기 가동 등 조치도 당부했다.

전남도는 5월부터 농축산물 폭염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폭염 특보 시 2만 6천여 농업인(단체)에 농작업 중단 안내 문자를 발송해 온열질환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또한 폭염에 따른 농축산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미세 살수장치, 차광막 설치, 축사 지붕 열차단재 도포 등 총 9개 사업에 112억 원의 재해 예방 시설·장비를 지원하고 있다. 재해 피해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2천117억 원 규모의 농업정책보험도 지원한다.

박현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런 폭염으로 온열질환 환자가 발생하고, 가축 폐사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며 "재해 대응에 있어선 '과하다 싶을 정도로' 사전 조치를 취하고, 무엇보다 농업인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대응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영길 기자

올 상반기 전국공항 이용객 7440만명... 국내선 줄고, 국제선 늘었다

올 상반기(1~6월) 인천과 김포, 김해 제주 등 전국 15개 공항을 이용한 승객은 7440만5000여명으로 전년 대비 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 상반기 항공수요는 5월 어린이날 연휴(5월1일~6일)와 6.3 대통령 선거 등으로 이어진 황금연휴에 국내 항공사들이 국내선 여객기를 국제선에 집중하면서 이 기간 국내선 여객이 감소했다.

4일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15개 공항 이용객은 7440만575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7433만2207명과 비교해 0.1%가 증가한 것이다.

주요 공항별로는 인천국제공항은 3636만1919명이었으며 운항 공항편은 18만

인천공항 3636만1919명으로 전년 대비 6.1% 증가
김포·제주·김해 등 전국공항 이용객 수는 5% 감소
"항공사가 국내선 항공편을 국제선에 집중 분석"

3461편으로 각각 전년 대비 6.1%와 4.5%가 증가했다. 이같은 증가는 코로나19 이후 주춤했던 중국(전년 대비 24.3%)과 일본(9.3%) 등 주요 노선의 운행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김포와 제주, 김해 등 전국 14개 공항의 이용객 수는 전년 대비 5% 감소했다.

이기간 전국 14개 공항의 여객수는 3804만3833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4005만3451명과 비교해 5%가 줄었다.

수도권의 관문인 김포국제공항은 이용객은 1069만3635명으로 국제선 이용객은 11.9% 증가했지만 국내선 수요는 10.5% 감소한 하면서 전체 이용객은 전년 같은기간 보다 6.7%가 감소했다.

또한 김해공항의 이용객은 796만2752명으로 전년 대비 4.9% 증가했다. 김해공항의 이용객은 국내선은 전년 대비 8%가 감소한 반면 국제선은 14.9% 급증하면서 이용객 수도 늘었다.

같은기간 제주공항의 이용객은 1376만

5645명으로 전년 대비 6.6% 줄었다. 이는 국제선 여객수는 전년 대비 19.6%가 증가했지만, 국내선은 8.7%가 감소했다.

특히 국내공항의 항공편수는 올 상반기 22만9083편으로 전년 23만6448편으로 3.1%가 감소했다. 이중 국내선은 17만421편으로 전년 대비 7.5%가 감소했고, 국제선 편수는 5만4862편으로 지난해보다 12.2%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전국공항에서 운행하는 국제선 이용객은 ▲김포-하네다가 97만 1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김해-타오위안 55만7000명 ▲김해-후쿠오카 55만 1000명 ▲김해-간사이 53만8000명 ▲제주-푸동 48만7000명 순으로 집계됐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항공사가 국내선 기체를 국제선에 집중하면서 국내선 여객 수요가 항공편 부족으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뉴시스

전남도, 공공기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온힘 도·시군·혁신도시 공공기관 등 대상 기업 매칭 상담·설명회

전라남도는 2일과 4일 무안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과 순천생태비즈니스센터에서 '2025년 상반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설명회'를 열어 공공기관의 구매 활성화를 유도했다.

설명회는 전남도, 시군, 혁신도시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 등 총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제도 안내, 구매 상담·전시관 운영, 기업 현장투어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설명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구매 담당자 위주로 참석자를 구성, 공공기관이 구매하려는 품목을 사전 조사해 이에 적합한 기업을 참여시켜 1대1 매칭 상담으로 이뤄졌다.

또한 권역별로 사회적경제기업을 방문해 제품 생산 공정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

이야기를 청취함으로써 제품 신뢰를 높이고 가치 있는 소비 문화의 확산을 유도했다.

이외에도 전남도는 공공기관 대상 명절 할인 판촉행사 운영, 사회적경제 공동 제품 온라인 쇼룸을 녹색나눔 운영 등 사회적경제 구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준철 전남도 일자리경제과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는 기업의 매출 신장 외에도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데 보탬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과 공공기관 간 구매 연계를 강화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 자립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채일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